올해 첫 무등산 정상개방 행사 성료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조용익 담양부군수 등은 지난 12일 무등산 지왕봉에서 광주의 흙과 전남의 물을 합치는 합수합토제를 가졌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기념행사 다채

광주 · 담양 · 화순 합수합토제 퍼포먼스도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기념하는 올해 첫 무등산 정상개방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등산 정상개방행사를 가졌다.

서석대 주상절리대부터 군부대 후문을 통과해 지왕봉과 인왕봉을 관람하고 부대정문으로 나오는 0.9㎞ 구간이다.

무등산 정상은 지난 1966년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으로, 지난 2011년 처음 개방된 이후 이번까지 총 22차례 개방행사를 가졌다. 그동안 무등산 정상을 찾은 탐방객수가 41만2000여명에 달했다.

이날 비 오는 날씨에도 모처럼 개방된 무등산 정상을 만끽하기 위해 5000여명의 탐방객들이 찾았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12일 확정된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기념해 광주와 담양, 화순지역 시·도민이 함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조용익 담양부군수 등은 이날 무등산 정상 지왕봉에서 광주의 흙과 전남의 물을 합치는 합수합토제를 가졌다.

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기여한 허민 무등산권 지질관광사업단장(전남대 부총장·대한지질학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남대학교 지질관광사업단은 이날 문빈정사 앞 잔디광장과 무등산 정상 등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펼쳤다.

광주시는 탐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질서계도 요원을 취약지에 집중배치하고 119구급차량과 헬기 등을 대기시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비가 오고 안개가 끼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탐방객들이 무등산 정상을 찾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기념하는 행사의 의미를 함께 했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기/자/수/첩/

담양군의원과 고액 채무

의원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 올바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한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정에 대한 신뢰성과 공신력이 추락해 주민들이 그들의 활동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후보들이 선거전에 나섰다. 담양군이라해서 예외는 아니다.

선거철을 맞아 담양군의회 K모 의원의 채무가 도마위에 올랐다.

담양군의 혈세를 감시하고 지켜야 할 군의원이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관계로 인해 의정 활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의정비의 일부를 압류당하면서 매월 일정액이 공제되고 있는 것이다.

K 의원은 자신의 채무로 인해 추심명령을 당하면서 의정 활동비 중 일부인 약 135만 원을 매월 꼬박꼬박 공제 당하고 있다. 귀중한 혈세가 개인의원의 빚 정리에 쓰이고 있는 셈이다. K 모 의원은 주 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추심명령 당한 후 수년째 매월 일정액을 공제 당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의원이 공제 당하고 있는 의정활동비의 전액이 군민의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군민을 대신하여 혈세의 낭비를 막아내야 할 의원의 신분을 상기할 때, 자신의 채무를 군민의 혈세로 갚고 있는 것으로도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K 모의원은 우모 씨로부터도 3억여 원의 압류건이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의정활동비 중 매월 135만원이 공제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거액의 채무가 있는 사람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 또 출마를 한다는 것이다.

정말로 군민을 위하고 군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의원이 되고자 한다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군민 앞에 나서야 할 것이다. 주민들은 정말 깨끗하고 참신하고 검증된 인물이 지역민을 대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역민으로부터 추앙받지는 못할 망정 개인 처신도 제대로 못하고 산다는 핀잔을 받아서는 곤란하다. 물론 결격사유만 없으면 출마하는 것이야 자유다. 그러나 거액의 채무를 진 상태에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신봉우 기자

금호고속, 18일부터 광주~인천공항 노선에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 한다

금호고속은 오는 18일부터 '광주유스퀘어(종합터미널)~인천국제공항' 노선에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광신고속과 함께 운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인천공항'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여행객 편의를 위해 별도의 환승 없이 출·도착장까지 무정차로 운행한다.

'도로 위의 퍼스트클래스'로 불리는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21개의 안락한 좌석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최고급 버스다.

기존 우등버스 대비 좌석을 7개 줄여 넓은 개인 공간과 무선충전, 고해상도 모니터, 전동시트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락한 공간과 뛰어난 승차감은 여행객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최적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인천공항' 노선의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는 시범적으로 임시 운행하지만 내달 1일 이후부터는 '왕복 6회' 고정 운행한다. 소요시간은 약 3시간 50분에 요금은 4만1800원이다.

프리미엄 고속버스 이용 문의는 금호고속 대표전화로 하면 된다.

조인호 기자

이낙연 총리 "세월호 2년 더 목포신항 거치"

외력 충돌설 "들어본 적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세월호 직립 현장을 찾아 "수색 등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목포신항에 2년 정도 거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을 찾아 세월호가 직립돼 있는 현장을 둘러봤다.

이 총리는 정성욱 4·16연대 인양분과장을 만났다. 이어 직립 용역업체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와 선체조사위원회로부터 직립 과정과 미수습자 수색과정, 침몰 원인 조사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앞으로 미수습자 수색과 침몰 원인 조사 등 검토해야 할 사안이 꽤 많다고 들었다"며 "2년 정도 세월호가 여기(목포신항)에 더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또 "기술적인 문제들로 인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도 어렵풋이 들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외력 충돌설 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고 보고 받은 내용도 없다"고 밝혔다.

동구,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 최우수상

광주 동구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광주광역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최한 '2018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마일리지 압류 및 추심방안'을 주제로 참여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동구는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1인당 발급된 카드가 4장에 육박하고 이에 따라 사용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신용카드 포인트 등 마일리지 1천억 원이 소멸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팀은 마일리지 압류 및 추심으로 납세의무를 실현하고 지방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을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발표에 나선 김현성 주무관(35. 세무과)은 "마일리지 압류·추심을 통한 체납세 징수방안이 현실화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수 증대는 물론 잠자고 있는 포인트를 활성화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 상록도서관, 독서문화 진흥 공모사업 싹쓸이

광주 서구 상록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 등에서 주최한 공모사업을 싹쓸이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인문독서아카데미', '길 위의 인문학',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그리고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등 총 4건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힘입어 앞으로도 일상에서 손쉽게 다가설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역사회 독서문화에 가일층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구 "우리는 대학생 금연환경 지킴이 입니다"

광주 남구 관내 대학생들이 흡연에 따른 폐해를 알리고,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구청과 손을 잡고 건강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구청 7층 소회의실에서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업무 협약식이 열렸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구 관내에 소재를 두고 있는 광주대와 기독간호대학, 송원대 등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앞서 남구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대학생 금연 환경 지킴이로 활동할 대학생 36명을 선발한 바 있다.

각 대학별 금연 환경 지킴이들은 올해 연말까지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과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감시, 금연 실천을 위한 금연 치료 홍보 등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특히 각 대학별로 금연과 관련한 UCC 콘텐츠를 제작해 보급하고, 대학교 교내에서 금연 관련 캠페인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북구 청년간부회의, 5 · 18 오월정신 의미 되새겨

광주 북구 청년간부회의가 5.18민주화운동 제38주년을 맞아 5월 광주정신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북구는 오는 18일까지 24기 북구청년간부회의 주관으로 지역주민 및 직원들과 함께하는 '제38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오월, 그날의 이야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족·민주 열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면서 1980년 오월의 광주를 기억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를 갖기 위해 추진한다.

광산구, 공용차량 안전운전 선포식 교육

11일 광산구가 구청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용차량 안전운전 선포식과 도로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선포식과 교육은 최근 방문복지서비스, 주민참여사업 등 현장중심 행정 수요가 많아 공용차량이 늘고, 그 사용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

선포식에서 광산구 공직자들은 '안전운전, 공무활동의 시작'을 외치고, 도로교통공단 고이라 전문강사의 강의를 들으며 안전운전을 다짐했다.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자 모집합니다"

고흥 · 나주 · 장성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한 정 승 인 공 고

사건번호 :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8느단 104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하승오 (570705-1665911)
최후주소 : 전남 진도군 임회면 폐동길 32 (사령리)
등록기준지 :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245

위 망 하승오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8년 5월 14일

공 고 인: 박은재, 하돈우, 하효정.
주 소 : 전남진도군임회면폐동길 32(사령리)
한정승인수리일 : 2018년 5월 3일
공고기간 : 2018. 5. 14~ 2018. 7. 16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건설면허신청 ■ 기장대리
■ 양도상속증여 ■ 법인설립
■ 기 업 진 단 ■ 외부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리
▶지정·건설 폐기물 처 ▶석면 해체공사
측량>>토목설계>>도시계획
토목공사>>창업상담>>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노동법 기업컨설팅 ▶산재업무대리
▶급여체계 정비사 ▶징계(해고)자문
▶4대보험 무료대행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